

광주·전남 가계 빚 50조 돌파 사상 최대

한은 광주전남본부 3월 여수신 동향...중기 대출 46조 최고치
전남 주담대 증가율 6개월째 전국 최고...광주도 평균 웃돌아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를 찍었다.
전남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6개월째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 25조9271억원·전남 24억1940억원 등 50조1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주 1조

5344억원·전남 1조4410억원 등 2조9754억원(6.3%) 높아진 금액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3589억원(광주 984억원·전남 2605억원)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한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금액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광주 16조1235억원·전남 9조67억원 등 25조130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50.1%)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주 9531억원·전남 6436억원 증가

했다. 특히 전남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6개월째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광주 6.3%·전남 7.7%로 전국 평균 5.2%를 크게 웃돌았다.
전남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9.1%를 기록하며 인천과 함께 1위로 올랐다. 이후 6개월 동안 전남 증가율은 11월 9.0%→12월 8.6%→2020년 1월 8.7%→2월 7.4%→3월 7.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6조1837억원으로 최고를 갱신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예금은행에서는 3869억원을 대출받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으로

부터는 3432억원을 빌렸다.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2조9734억원에서 5114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예금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따른 자금인출 등으로 전월의 큰 폭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증가폭 6505억원으로 전월의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30곳
1분기 '부진한 성적표'

전년비 매출 2160억원 감소

광주·전남 상장기업 30개사는 올해 1분기(1~3월) 전국 평균 실적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2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 1분기 실적요약'을 발표하며 지역 코스피 상장기업 13개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160억원) 감소한 16조356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매출 감소율 -0.87%보다 악화된 실적이라고 광주사무소는 설명했다.
지역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7.76% 감소했다. 전국 감소율은 -13.23%로 나타났다. 한전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적자폭을 1조8641억원 감축해 실적을 개선했다.
광주·전남 코스닥 상장사 사정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지역 17개사의 매출액은 전국 성장세(3.59%↑)와 달리 지난해보다 -7.12%(206억원) 감소한 2680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적자를 지속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광주신세계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30.08%로 전체 평균 5.64%(광주·전남 -3.03%)를 크게 웃돌아 호조를 보였다. 순이익부분에서는 대우플러스가 순이익률 63.03%로 가장 높았다. 지역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여수 와이엔텍(폐기물 처리업)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8.04%, 매출액 순이익률 21.11%를 기록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여수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

신세계백화점, 전남 농산물 판매망 전국 확대



'신세계-전남도 농수축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이 맺어진 25일 광주신세계 1층 매장에 마련된 직거래 장터를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와 판로확대 협약

전국 신세계백화점이 전남지역 농수축산물 판매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는 유신열 신세계 영업본부장과 김영록 도지사가 이날 광주신세계에서 '전남도 농수축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 유근기 곡성군수,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정임수 한농연전남연합회장, 김봉선 한여농전남연합

회장, 김재기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신세계는 협약에 따라 전남 우수 농수축산물의 지속적인 판매와 매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 광주신세계는 전남 22개 시·군과 직거래 장터를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판매망 확충과 지역 관광 홍보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대구신세계는 오는 6월 전남 직거래 장터를 연다.
유 본부장은 "전남도와 농수축산물 판로확대 상생협력을 통해 구매 고객의 만족

도를 높이고,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 판촉행사를 접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와 전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5일 동안 직거래 장터를 벌여 1억86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달 21~28일에도 전남 20개 시·군 26개 농가와 장터를 벌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4.60 (+24.47) ↓ 금리(국고채 3년) 0.815 (-0.022)
↑ 코스닥 719.89 (+11.31) ↑ 환율(USD) 1244.20 (+7.20)

광운·전남TP·전남신보, 코로나19 극복 간담회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 세번째)과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두번째),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양수·네번째)은 25일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전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은행 제공)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무역협회 비용 절감 등 지원

한국무역협회는 물류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사업은 물류 전문가들이 수출 중소기업 직접 방문해 수출입 프로세스, 관세·통관, 물류센터 활용 등 물류 전반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사업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오는 11월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로, 심

화 컨설팅 비용은 참여 기업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지난달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관세사, 물류센터(창고) 운영사, 화제·적하보험사, 법무법인, 전자상거래 기업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 구성을 완료했다.
무렵은 컨설팅 대상 기업을 지난해 8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컨설팅 분야도 법률자문, 전자상거래, 심화 컨설팅 부문을 신설해 보다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유선과 화상 등 비대면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중기부, 3대 미래산업 창업·벤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미래산업 '빅3'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2차 모집에 456개 기업이 신청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 98곳을 1차 선정 한 데 이어 2차 모집을 통해 추가로 150곳 안팎의 기업을 선정, 올해 250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신청 현황을 보면 바이오 293곳, 미래자동차 111곳, 시스템반도

체 52곳 등이다.
바이오 분야는 디지털헬스케어 9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81곳, 의약 68곳, 바이오소재 49곳 등이다.
미래자동차 분야는 친환경차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이 20곳으로 최다였다.
지원 대상 기업은 기술성과 혁신성 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되는 기업에는 3년간 최대 12억원 규모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자금이 지원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